

지역과 하나되는 건축 로컬 건축가 고성호



KO Sung Ho

건축은 단순히 공간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한 시대의 삶과 문화를 기록하는 일이다. 그중에서도 로컬 건축은 특정 지역의 자연환경과 지역민의 생활, 수 세대에 걸친 기억이 커커이 쌓여 만들어진다. 지역의 흙과 돌, 바람과 햇살 그리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손끝이 함께 만들어낸 건축. 그래서 로컬 건축은 설계자의 이름보다 장소의 이야기가 먼저 들리는 건축이다.



Local Architecture



로컬 건축이란?

로컬 건축은 특정 지역의 자연환경과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건축의 형태와 구조 그리고 공간의 쓰임에까지 스며든 건축을 말한다. 즉, 로컬 건축은 지역의 환경과 인간의 삶이 오랜 시간 상호작용하며 빚어진 결과물로, 그 지역 고유의 정체성과 미감을 가장 잘 보여주는 건축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세계건축상을 수상한 로컬 건축가 고성호

고성호 건축가는 로컬 건축의 본질을 가장 잘 보여주는 건축가 중 한 사람으로, 서울 중심의 건축 담론에서 벗어나 부산과 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그 땅이 가진 자연과 기억을 건축으로 번역하는 일'을 실천해왔다.

비전공자로 출발한 그는 영국 런던예술대학에서 건축·디자인 매니지먼트를 공부한 뒤, 지역성과 장소성에 대한 감각을 자신의 건축 언어로 다듬어왔다. "건축은 땅이 지닌 성질과 지형, 자연조건, 기후 등을 이해하고 그것에 맞게 짓는 일이다."라는 그의 말처럼, 고성호의 건축은 언제나 땅의 이야기를 먼저 듣는다. 그에게 건축은 대지를 덮는 구조물이 아니라, 땅이 가진 결을 드러내는 일이며,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이다.

‘로컬 건축은 그 땅이 가진 자연과 기억을 건축으로 번역하는 일’

- 고성호



부산 기장군 카페 '칠암사계'

소멸 위기의 작은 어촌마을에 자리 잡은 이 건물은 마을의 단차와 좁은 골목길을 그대로 살려 여러 개의 낮은 채를 나란히 배치했다. 바다를 향해 열린 마당과 대나무 숲 사이의 통로는 지역 지형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며, 일상과 자연의 흐름이 어색하지 않게 이어지도록 설계됐다.



건물 내부와 외부에서의 경험 또한 섬세하게 계획되었다. 창을 통해 칠암마을의 주산인 달음산과 항 주변의 등대 등 사계절의 풍경을 느낄 수 있도록 배치했으며, 두 개의 정원에는 변화하는 계절을 축소해 담아내는 설계를 적용했다. 바닷가 쪽 좁은 건물에는 커튼월 공법을 적용해 시각적 개방성을 극대화하고, 전면 부지보다 높은 후면 쪽은 동형 외관을 채택하여 선도적 디자인을 보여주면서도 태풍이나 자연재해에 취약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를 보완했다.

이러한 설계를 통해 건축이 완성된 후 마을에는 다시 사람들이 찾아왔고, 버려졌던 공간은 공동체의 중심으로 되살아났다. 칠암사계는 지역과 자연, 그리고 인간의 삶을 연결하는 로컬 건축의 좋은 예로 평가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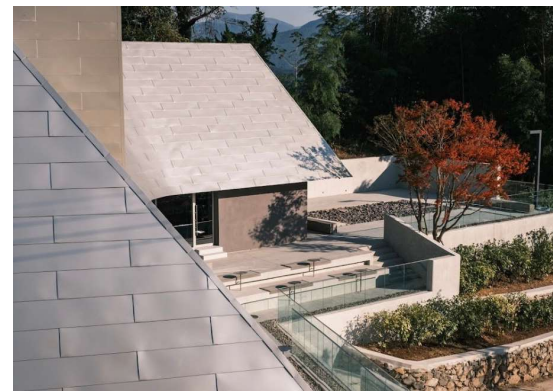


경남 양산시 카페 '성림목장'

경남 양산의 '성림목장'은 폐목장을 리노베이션한 프로젝트로, 과거의 흔적을 보존하는 것을 넘어 새로운 구조와 공존하게 만든 공간이다. 고성호 건축가는 오래된 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시간의 흔적과 균열을 그대로 남긴 채 그 위에 새 구조를 쌓아 올렸다. 방문객은 벽의 틈과 바닥의 자국을 통해 공간이 품고 있는 '시간의 층'을 자연스럽게 체험할 수 있다.



리노베이션된 공간 속 카페는 대지의 기억을 방해하지 않도록 소규모로 설계되어, 장소성을 보존하고 기존 건축물과의 관계를 이어간다. 내부에서는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자연 풍광이 사색적 분위기를 극적으로 강화하며, 지붕을 중심으로 구성된 카페동은 전통 정자처럼 안과 밖의 경계를 허물어 자연으로의 확장을 이끈다. 외부에서는 지붕만 보이지만, 내부에 들어서면 건물은 사라지고 오직 자연만이 남는다.



부산 금정구 카페 '선유도원'

‘선유도원’은 이름 그대로 ‘선선이 머무는 동굴’을 떠올리게 하는 건축이다. 이 건축은 새로운 형태나 과시적 디자인을 추구하기보다, 주변 풍경을 어떻게 하면 건축 안으로 끌어안고 조화롭게 보여줄 수 있을지에 집중했다.



건물은 경사를 따라 여러 레벨로 나뉘어 배치되며, 각 층의 테라스는 숲과 수면의 반사를 한눈에 담는다. 공간마다 경험할 수 있는 풍경이 달라, 건축 내부에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자연의 리듬과 마주하게 된다. 지형적으로 가장 낮은 서재는 근경의 숲과 마당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도록, 가장 높은 동전은 멀리 회동수원지와 마을을 바라볼 수 있는 원경을 위해 배치했다. 두 공간 사이에 자리한 동재는 중경의 풍경을 자연스럽게 담는다.

이처럼 선유도원은 각 공간이 주변 경관과 긴밀하게 연결되도록 설계되어, 건축이 단순히 머무는 장소가 아니라 풍경을 체험하는 장이 되도록 했다. 차경의 원리와 전통 정원에서 영감을 받은 설계를 통해, 서로 다른 풍경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며 방문객에게 다채로운 건축 경험을 선사한다.



칠암사계, 성림목장, 선유도원 등 세 작품은 제49회 세계건축상에서 동시 수상의 영예를 안으며, 국제 건축계의 주목을 받았다. 한 건축가가 한 해에 세 작품으로 세계건축상을 받은 것은 매우 드문 일이며, 특히 지방의 로컬 건축이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은 첫 사례로 기록되었다. 고성호 건축가는 “이번 수상은 한국 로컬 건축이 더 이상

변두리 담론이 아니라, 세계 건축과 대화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소감을 남겼다. 그의 건축은 화려한 조형미보다 ‘삶의 결’을 닮아 있다. 대지를 거스르지 않고, 빛과 바람이 스스로 머물 수 있도록 설계된 공간. 공간의 형태보다 그곳에 머무는 사람의 몸과 감각이 중심이 되는 건축. 그것이 고성호 건축가가 추구하는 로컬 건축이다.